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 개발 시급

사회적으로 황혼이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11 서울서베이 및 2011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이 결혼 4년차 이하의 이혼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황혼이혼은 1991년 7.6%에서 2011년 27.7%로 꾸준히 늘어났지만, 신혼이혼은 1991년 35.6%에서 2011년 24.7%로 줄어 들었다. 이에 최근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복지단체에서는 부부 갈등 극복을 위한 관계 개선 프로그램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는 다른 종교에 비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편집자주)

◇불교계, 일회성 행사로만 그쳐

불교계는 부부 관련 프로그램들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한국여성불교연합회서 이혼예방센터 및 전문상담 교육을 진행해 온 것이 전부다. 불교는 템플스테이, 명상, 참선 등 대표적인 수행법이 있음에도 부부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불교문화사업단 흥민서 팀장은 "휴식·건강 등을 테마로 한 가족형 템플스테이들은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부부만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사찰은 현재 없다"며 "부부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고 해도 일회성으로 끝날 뿐"이라고 말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지난 5월 전체 전화상담 중 가정문제 52%, 부부문

제가 2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성래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장은 "2007년 8월 한 차례 부부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부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보다 가정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사찰에서도 부부를 위한 법회보다 가족법회·어린이법회 활성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부부보다 가족,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포교활동이 신도확장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명예회장은 "부부관계개선을 위한 법회 및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사찰과 단체에서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래야 홍보효과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이나 법회를 진행할 지도 법사들도 증대돼야 한다. 종단 차원에서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발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부법회 및 포교활동 등을 통해 가정 불교를 실천 하고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법안정사 부부불자회는 1993년 창립해 20년 넘게 부부포교활동을 실시해 왔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법회를 열고, 봉사활동, 바자회, 수련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윤광진 법안정사 부부불자회 회장은 "법회를 통해 또 다른 부부들을 만나고 함께 포교생활을 이어나 가니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 진다"고 말했다.

조계사도 3월 초 평생교육원을 수탁하고 이번 달부터 '조계사 마인드 케어 평생교육원'을 운영해 갈 계획이다. 평생교육원의 주요 프로그램에는 부부행복 캠프, 가족행복캠프, 노인행복캠프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종교 상관이 없어...효과만 좋다면 OK!

종교계에서도 부부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돕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원불교에서 진행 중인 '행복캠프'는 일반인들의 신청이 쇄도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원불교 권도갑 교무가 진행하는 '행복캠프'는 매월 한 번씩 1박2일 코스로 진행된다.

불교, 부부법회 활용 필요 대두

원불교, '행복캠프' 큰 인기

기독교, YMCA 등 세미나 다양

'행복캠프'는 2007년 8월 문을 열어 지금까지 1700여 명이 참가했다. '배우자와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부부간 갈등과 원망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권도갑 교무는 "서로가 상대방이 자신에게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정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첫 번째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불교계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증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한 부부가 템플스테이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이들이 캠프를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기독교 단체에서도 부부개선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서울YMCA는 6월 23일, 30일에 '2012 생명을 사랑하는 신혼부부학교'를 개최해 부부대화방법들을 비롯한 서로를 이해하고 올바른 가족 미래

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지구촌가정훈련원에서는 7월 30일~8월 3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제 17차 해외부부세미나를 개최한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주제로 다양한 강의 및 워크샵, 축제 등이 진행된다. 또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은 19년 전부터 국내외 820여 교회에서 가족갈등치유 세미나를 비롯한 부부행복학교를 개최해 왔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학교폭력' 명상으로 대안 찾자

청소년명상상담 지도자 워크숍 6월 16일 개최

한국명상치료학회 명상상담연구원이 청소년 명상상담 지도자 아카데미를 연다. 청소년 자살 및 자해 예방을 위한 명상상담 프로그램인 '명상상담 지도자 워크숍'은 6월 16일 서울 장충동 불광산사 3층에서 첫 수업을 진행한다. 참가 대상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교사·심리상담사·사회복지사·청소년 지도자 등의 현장전문가, 관련학과 대학원생 등이다.

탐장을 맡은 헤타 슌은 "오늘날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자살, 학교폭력, 부적응 행동, 인터넷 및 게임 중독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 대한 지속적 자기 조절 훈련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명상적 접근을 접목한 지도자 워크숍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한다.

청소년명상상담 아카데미는 명상적 접근을 통해 인성 함양 및 자

기조절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월 1회씩 총 12회 진행되는 워크숍은 ▷청소년 자살 및 자해 예방 ▷청소년 불안 ▷어린이 ADHD ▷분노 조절 ▷유아 염치관 명상 ▷청소년 DBT ▷어린이 스트레스 ▷청소년 ADHD ▷청소년 LIDA명상 ▷양극성 성격장애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명상 상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헤타 슌은 "강사진은 심리상담 전문가, 임상심리사, 교수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기존의 심리학적 방법에 명상을 접목시켜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깊은 명상과 긍정적인 자기감 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명상상담연구원은 이 프로그램이 템플스테이, 교직원 직무연수, 학부모 교육, 학생상담지원 봉사자 연수, 전문상담인 연수프로그램 등으로 발전돼 정착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연꽃마을, '전국효사랑마라톤대회'



6월3일 연꽃마을 마라톤 행사에서 파라밀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은 2km 건강코스 에 참여했다. 사진은 각현 스님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은 6월 3일 안성에서 '제5차 전국효사랑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각지에서 참가한 마라톤 동호회와 개인 마라톤 선수로 구성된 단체로 참가한 직장인들, 가족 단위로 마라톤을 즐기러 나온 시민 등 2300여 명이 함께 어우러진 큰 잔치였다.

마라톤행사는 하프(21)km, 10km, 5km, 2km 건강걷기 코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파라밀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2km건강코스

는 자원봉사자들 시설장과 시설직원들이 어르신들의 휠체어를 밀며 2km의 코스를 함께 완주해 훈훈한 감동을 자아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흥태선씨가 1시간 20분 13초의 기록으로 남자 하프코스 1위, 김미숙씨가 1시간 41분 31초로 여자 하프코스 1위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연꽃마을은 참가자 전원에게 먹거리와 경품추천의 기회를 제공한 등 축제분위기를 마련했다.

이은정 기자

BBS, 난치병어린이위해 5천만원 기부

'거룩한 만남' 통한 모연금 조계종 복지재단에 전달

BBS 불교방송은 6월 8일 사장 집무실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에 난치병어린이 지원 모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모연금은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과 '거룩한 만남' 제작팀이 5월 한 달간 '거룩한 만남' 프로그램을 통해 ARS로 모연한 것이다.

사회복지재단과 5월 '제12회 국내외 난치병어린이지원 3000배 철

야정진'을 공동주관한 불교방송은 "어느 때보다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는 파스한 마음과 실천이 필요한 요즘, 보다 많은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부처님 품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길 바라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날 전달받은 모연금과 서울조계사 및 전국 사찰서 동참한 현장모금액, 5월

한 달간 지속된 온라인 모금액 등을 합쳐 오는 7월경 난치병어린이에게 치료비로 전달할 계획이다.

병원법당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은 사회복지재단은 "6월중 선정회의를 개최해 치료비 지원이 시급한 난치병 환자 30여 명을 선정하고, 생활환경 및 치료의 시급성을 고려해 치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정 기자

생명나눔, 환자 위한 음악회 열어

14일 동대 일산병원서 '한다숨 희망음악회'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6월 14일 오후 3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서 '제4회 한다숨 희망음악회'를 개최한다. 희망음악회에는 가수 이법학, 고한우, 송봉주, 세리, 국악인 송소희양이 출연하며, 남양주 광동고 댄스부(카르페디엠)와 포르테 색소폰 동호회 연주자 마련된다.

음악회에 앞서 일면 스님과 홍보대사 김병조, 김혜옥, 설수현 씨 및

병원관계자들은 떡을 나누며 병실을 위문하고 환자 치료비 특별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 장기기증 캠페인과 단주 만들기 체험, 무료 차 나눔이 준비될 계획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번 음악회는 아프고 힘든 사회적으로 소외된 환자와 가족들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4-8050 이은정 기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제9대 총무원장 경원 스님

2012년 5월 30일 제44차 임시중앙총회에서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본종 제9대 총무원장으로 경원스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제방에 아뢰입니다.

- | | |
|--------------|--------------|
| 중앙총회의장 법선스님 | 호 계 원 장 법성스님 |
| 교 육 원 장 법해스님 | 포 교 원 장 도안스님 |
| 감 사 원 장 석성스님 | 선거관리위원장 동청스님 |
| 총무원부위원장 용운스님 | |

재)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의 종단업무는 재단중심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각사암은 주지임명장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삼장불교대학은 본종 종립대학으로 새로 출발예정이며, 이재복 처장님 입직후(2010년) 발급된 수료증 또는 졸업장은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